

경제포커스

■ 서울시 고령자 재취업 특성 분석: 워크넷과 고용 보험의 자료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자 현황

김은희(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노인취업훈련센터))

서울시 고령자 재취업 특성 분석: 워크넷과 고용보험의 자료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younh@sdi.re.k

1. 자료설명 및 분석방법

워크넷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인, 구직 등록자를 통합한 데이터로,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고용데이터이다. 워크넷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고령자의 구인, 구직 및 취업에 대한 현황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해 재취업한 고령자의 취업기간, 재취업후 직종, 업종, 소득과 같은 특성을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본다.

2005년 1~12월 사이에 워크넷에 등록된 서울시 55세 이상 고령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고용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이들의 재취업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절에서 사용된 표본(sample)은 상기 기간동안 등록된 총 41,102명의 구직자와 구직일, 채용일을 바탕으로 재취업기간을 측정할 수 있는 11,558명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¹⁾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오레곤주립대 (Orego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조흥은행 심사역 차장 역임
-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12)
- “서울시 고령자고용개발체계에 관한 연구”, 2006년 시정개발연구원 기본과제 등

1) 향후 제시되는 통계량(%)
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사례수(missing value)

, 편수별로 빈도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

2. 구직자의 분석

1) 구직자 일반특성

2005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워크넷에 등록된 서울시 55세 이상 고령 구직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 구직자의 분포를 보면 55-60세가 총 41,102명의 구직자 중 58.2%인 23,90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1-70세가 16,673명(40.6%), 71-80세는 510명(1.2%), 81세 이상은 12명으로 나타났다. 구직을 원하는 고령자는 주로 55세 이상 70세 이하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구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총 41,102명 중 70.3%인 28,913명이고, 여성은 그 보다 적은 29.7%인 12,819명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이 13,256명(32.3%)으로 가장 높고, 초졸이하가 12,623명(30.7%), 중졸이 9,462명(23.0%), 대졸이 4,836명(11.8%), 전문대졸이 581명(1.4%)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동북권에 13,931명(33.9%), 서남권에 13,879명(33.8%)이 거주하고 있어 고령 구직자의 2/3가 위 두 권역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동남권, 서북권, 도심권에 각각 6,193명(15.1%), 5,175명(12.6%), 1,924명(4.7%)이 거주하고 있다.

<표 1> 2005년 워크넷 구직자 특성

(단위: 명, %)

연령대별	55-60	61-70	71-80	81세 이상	계		
구직자	23,907	16,673	510	12	41,102		
비중	58.17	40.56	1.24	0.03	100		
성별	남성		여성		계		
구직자	28,913		12,189		41,102		
비중	70.34		29.66		100		
학력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계
구직자	12,623	9,462	13,256	581	4,836	344	41,102
비중	30.71	23.02	32.25	1.41	11.77	0.84	100
거주지	도심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원	계	
구직자	1,924	6,193	13,879	13,931	5,175	41,102	
비중	4.68	15.07	33.77	33.89	12.59	100	

자료: 워크넷 원자료

2) 구직 희망 특성

구직자의 희망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직을 원하는 구직자가 전체의 80%인 32,88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6,474명(15.8%)이었고, 계약직을 원하는 구직자도 1,379명(3.4%)이 있었다. 이들 구직자의 희망 임금수준은 1백만원이하가 26,978명(65.6%)으로 가장 많고, 2백만원이하도 9,919명(24.13%)이 되어 대부분 2백만원이하의 저임금을 원하였다. 희망임금 형태별로 보면, 월급을 선호하는 구직자가 38,771명(94.3%)으로 가장 많았다.

〈표 2〉 2005년 워크넷 구직자의 희망고용형태, 임금수준 및 임금형태

(단위: 명, %)

	내용	인원	비중
희망고용형태	상용직, 파견근로	37	0.09
	시간제, 파견근로	1	0.00
	계약직, 파견근로	4	0.01
	무관, 파견근로	78	0.19
	상용직	32,881	80.00
	시간제	189	0.46
	계약직	1,379	3.36
	무관	6,474	15.75
	일용직	59	0.14
	합계	41,102	100
희망임금수준	1백만원 이하	26,978	65.64
	2백만원 이하	9,919	24.13
	3백만원 이하	1,508	3.67
	1천만원 이하	456	1.11
	3천만원 이하	1,055	2.57
	5천만원 이하	413	1.00
	기타	773	1.88
	합계	41,102	100
희망임금형태	월급	38,771	94.33
	연봉	1,459	3.55
	일급	695	1.69
	시급	177	0.43
	합계	41,102	100

자료: 워크넷 원자료

희망직종을 살펴보면,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을 원하는 구직자가 총 41,102명 중 49.2%인 20,22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이 3,089명(7.5%), 경영, 회계, 사무관련 전문직이 2,937명(7.2%), 건설 관련직이 2,811명(6.8%),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 2,627명(6.4%) 순으로 비중이 높다.

<표 3> 2005년 워크넷 구직자의 희망직종 (중분류)

(단위: 명, %)

직종(중분류)	구직인구	비중
관리직	1,690	4.11
경영, 회계, 사무관련 전문직	2,937	7.15
금융보험관련직	181	0.4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280	0.68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57	0.14
보건, 의료 관련직	337	0.82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354	0.86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88	0.46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627	6.39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	782	1.90
경비 및 청소 관련직	20,224	49.20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14	0.28
음식서비스 관련직	1,574	3.83
건설 관련직	2,811	6.84
기계 관련직	1,523	3.71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256	0.62
화학관련직	83	0.20
섬유 및 의복관련직	432	1.05
전기, 전자관련직	764	1.86
정보통신관련직	187	0.45
식품가공관련직	46	0.11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3,089	7.52
농림어업 관련직	566	1.38
합계	41,102	100

자료: 워크넷 원자료

희망직종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을 희망하는 경우 생산관련 단순직(2,813명)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 회계, 사무관련 전문직은 사무직(2,424명)을, 건설 관련직은 단순노무직(1,158명)을,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은 운전직(2,103명)과 단순직(363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는 재취업 시 직종이 무엇이든 단순직을 희망하고 있다.

<표 4> 2005년 워크넷 구직자의 희망직종 (일부직종 중분류 및 소분류)

(단위: 명)

직종(중분류)	직종(소분류)	인원
경비 및 청소관련직	경비 관련직	10,194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7,266
	계기점검, 수급 및 주차관리 관리 관련직	2,764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생산단순직	환경공학기술자	27
	비파괴,안전공학 관련직	86
	환경관련 장치 조직원(상하수,소각)	3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직원	110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직원	12
	가구,가판제작,공예원 및 기타제조 관련직	38
	생산관련단순직	2,813
경영,회계,사무관련 전문직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84
	경영 관련 사무직	2,424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200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192
	비서 및 사무보조원	37
건설 관련직	건축가,도시계획,토목 치 측량관련 기술자(엔지니어)	609
	전통건물건축원	4
	철근,철골 및 콘크리트공	97
	석공 및 조적원	42
	목공	264
	건축완성관련직	550
	건설기계운전원(크레인 · 호이스트 · 지게차 · 운전원 제외)	51
	토목 및 채굴관련직	36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1,158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40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12
	자동차운전 관련직	2,103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109
	운송관련 단순직	363
관리직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205
	사업,금융 및 사무관련 관리직	872
	건설, 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332
	개인서비스관련직	281

<표 4> 계속

직종(중분류)	직종(소분류)	인원
음식서비스 관련직	주방장 및 조리사	414
	조주사	1
	식당 서비스 관련직	1,159
기계 관련직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	108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455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41
	자동차정비원	126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 조작용	116
	보일러 및 냉동 관련 설비 조작용	469
	운송차량 및 기계관련 조립원	208

3. 취업 분석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 41,102명 중 재취업에 성공한 고령자는 11,558명으로 전체의 28.1%에 해당된다.²⁾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5~60세 구직자 23,907명 가운데 30.1%인 7,194명이 재취업에 성공하여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61~70세가 26.1%, 71~80세가 3.9%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 구직자 28,913명 중 30.0%인 8,676명이, 여성은 12,189명 중 23.6%인 2,882명이 재취업에 성공하여 남성의 재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별 취업률을 보면 고졸 구직자의 재취업률이 30.7%로 가장 높고, 중졸(29.3%), 전문대졸(28.2%), 초졸 이하(26.6%), 대졸(23.2%), 대학원졸(18.9%) 순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취업자의 직종이 단순직으로 편향되어 있어 중등교육만 이수한 고령자가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격면허 보유여부에 따른 취업률 살펴보면 면허보유자의 재취업률 26.6%는 미보유자의 30.6%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들의 취업업종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직자의 거주지역별 재취업률을 보면 서북권 구직자가 28.8%로 가장 높고 동북권(28.6%), 서남권(28.5%), 동남권(26.6%), 도심권(26.4%) 순으로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권역별로 큰 차이는 없다.

2) 고용보험에 등록된 재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업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에 취업한 인원은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표 5> 2005년 워크넷 구직자의 특성별 재취업

(단위: 명, %)

특성	재취업자	구직자	취업률	
연령	55~60세	7,194	23,907	30.09
	61~70세	4,344	16,673	26.05
	71~80세	20	510	3.92
	81세 이상	-	12	0.00
성별	남성	8,676	28,913	30.01
	여성	2,882	12,189	23.64
교육수준	초졸이하	3,355	12,623	26.58
	중졸	2,775	9,462	29.33
	고졸	4,075	13,256	30.74
	전문대졸	164	581	28.23
	대졸	1,124	4,836	23.24
	대학원졸이상	65	344	18.90
자격면허	보유	6,700	25,224	26.56
	미보유	4,858	15,878	30.60
거주지	도심	488	1,924	25.36
	동북	3,980	13,931	28.57
	서북	1,490	5,175	28.79
	서남	3,956	13,879	28.50
	동남	1,644	6,193	26.55
합계	11,558	41,102	28.12	

자료: 워크넷, 고용보험 원자료

5. 재취업 전후의 특성 변화

1) 재취업 전후의 직종 변화

구직등록 이전과 이후의 직종변화를 살펴보면 구직자의 41.5%인 4,079명이 직종을 변화하여 고령재취업자의 직종변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고위임직원의 경우, 30.92%인 145명만이 동일직종으로 재취업하였고, 87명(18.55%)과 108명(23.03%)이 전문가와 사무직으로, 81명(17.27%)이 단순노무직으로 이동하였다. 전문가 및 기술공의 경우 29.67%인 181명만이 동일직종으로 재취업하였고 73명(11.97%)과 96명(15.74%)이 사무직과 기능원으로, 182명(29.84%)이 단순노무직으로 이동하였다. 사무직의 경우 25.73%인 238명만이 동일직종으로 재취업하였고 288명(31.14%)이 단순노무직으로 이동하였다. 기능원의 경우 18.06%인 143명만이 동일직종으로 재취업하였고 459명(57.95%)이 단순노무직으로 이동하였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대다수인 79.52%인 4,530명이 동일직종으로 재취업하였다.

구직자의 상당수가 재취업 시 직종이 하향 이동하였으며, 특히 전문가 및 기술공, 사무직, 기능원의 경우 단순노무직으로의 재취업이 많음을 볼 수 있다.

<표 6> 2005년 워크넷 재취업 전후의 직종 변화

(단위: 명)

	임직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기능원	농업	단순노무	합계
임직원	145 (30.92)	87 (18.55)	108 (23.03)	16 (3.41)	30 (6.40)	2 (0.43)	81 (17.27)	469
전문가	54 (8.85)	181 (29.67)	73 (11.97)	21 (3.44)	96 (15.74)	3 (0.49)	182 (29.84)	610
사무직	110 (11.89)	109 (11.78)	238 (25.73)	71 (7.68)	105 (11.35)	4 (0.43)	288 (31.14)	925
서비스 판매직	26 (3.28)	28 (3.54)	50 (6.31)	143 (18.06)	85 (10.73)	1 (0.13)	459 (57.95)	792
기능원	42 (3.20)	90 (6.86)	100 (7.63)	82 (6.25)	499 (38.06)	1 (0.13)	497 (37.91)	1,311
농업	-	4 (28.57)		-	3 (21.43)	3 (0.08)	4 (28.57)	14
단순노무	88 (1.54)	97 (1.70)	313 (5.49)	370 (6.49)	255 (4.48)	44 (2.14)	4,530 (79.52)	5,697
합계	465	596	882	703	1,073	58	6,041	9,818

자료: 워크넷, 고용보험 원자료 주1) 열은 이전 직종, 행은 이후 직종을 나타냄

2) 재취업 전후의 업종 변화

재취업 시 업종별 전환을 살펴보면, 전체 재취업자 10,451명의 48.0%에 해당하는 5,012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여 고령재취업자의 업종전환이 매우 크다. 다만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의 경우 재취업자의 각각 61.25%, 59.45%, 68.0%가 업종을 유지하여 비교적 동종업종에 취업하였다. 또한 전체 재취업자의 32.5%인 3,392명이 타 업종에서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산업으로 이동하여 이들 업종으로의 재취업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업종은 고령자가 단순한 직업능력을 가지고 진입하기 쉬운 업종이거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업종전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前職이 제조업의 경우 33.79%(299명)가 제조업에 취업을 하고 15.59%와 24.40%가 부동산사업과 서비스업에 취업을 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40.71%(241명)가 건설업에 취업을 하였고 사업서비스업과 부동산업에 각각 25.84%와 12.50%가 취업을 하였다. 운수업의 경우 61.25%(479명)가 운수업에 취업을 하여 업종유지가 비교적 높았으며 사업서비스업과 부동산업에 각각 16.62%와 11.22%가 취업을 하였다. 부동산업의 경우 51.83%(1,007명)이 동종업종에 취업을 하였고 사업서비스업에 37.36%가 취업을 하였다. 사업서비스업인 경우 59.45%(1,821명)가 동종업종에 취업을 하였으며 23.4%가 부동산업에 취업을 하였다. 공공행정의 경우 68.00%(918명)이 동종업종에 취업을 하였고 사업서비스업에 11.40%가 취업을 하였다.

<표 7> 2005년 워크넷 재취업 전후의 업종 변화

(단위: 명)

업종	1	2	3	4	5	6	7	8	9	10
1	102 (15.7)	-	-	-	-	4 (2.1)	1 (0.5)	1 (0.5)	2 (1.0)	-
3	1 (7.7)	-	5 (38.4)	1 (7.7)	-	-	2 (15.4)	-	1 (7.7)	-
4	1 (0.1)	1 (0.1)	2 (0.2)	299 (33.79)	-	34 (3.8)	54 (6.1)	12 (1.3)	52 (5.9)	1 (0.1)
5	-	-	-	5 11.9	11 (26.19)	3 (7.1)	-	-	-	-
6	6 (1.0)	-	2 (0.3)	27 (4.6)	1 (0.2)	241 (40.71)	22 (3.7)	2 (0.3)	15 (2.5)	1 (0.1)
7	3 (0.9)	-	-	39 (12.3)	1 (0.3)	7 (2.2)	77 (24.37)	6 (1.9)	13 (4.1)	-
8	-	-	-	2 (1.3)	-	3 (2.1)	4 (2.8)	55 (38.46)	7 (4.9)	1 (0.6)
9	1 (0.1)	-	-	11 (1.5)	1 (0.1)	7 (0.9)	14 (1.8)	-	479 (61.25)	1 (0.1)
10	-	-	-	3 (7.5)	-	1 (2.5)	1 (2.5)	-	1 (2.5)	9 (22.50)
11	1 (0.9)	-	-	17 (14.9)	-	2 (1.7)	6 (5.2)	1 (0.9)	5 (4.4)	1 (0.9)
12	6 (0.3)	-	-	29 (1.5)	-	21 (1.1)	25 (1.3)	10 (0.5)	28 (1.4)	2 (0.1)
13	13 (0.4)	-	-	54 (1.8)	-	59 (1.9)	59 (1.9)	18 (0.6)	55 (1.8)	1 (0.0)
14	21	-	-	18	1	7	8	3	16	-
15	-	-	-	6 (4.7)	-	2	1 (0.8)	2 (1.6)	1 (0.8)	-
16	2 (1.0)	-	-	3 (1.5)	1 (0.5)	3 (1.5)	4 (2.0)	3 (1.5)	6 (3.1)	1 (0.5)
17	6 (4.0)	-	-	2 (1.3)	-	1 (0.5)	6 (4.0)	1 (0.7)	3 (2.0)	1 (0.5)
18	15 (2.9)	-	-	24 (4.7)	2 (0.3)	8 (1.5)	17 (3.3)	1 (0.2)	13 (2.5)	1 (0.2)
19	-	-	-	-	-	-	-	-	-	-

<표 7> 계속

업종	11	12	13	14	15	16	17	18	19	총합
1	1 (0.5)	3 (1.6)	11 (6.0)	30 (16.4)	-	-	11 (6.0)	17 (9.3)	-	183 (100)
3	1 (7.7)	1 (7.7)	1 (7.7)	-	-	-	-	-	-	13 (100)
4	5 (0.6)	138 (15.59)	216 (24.40)	16 (1.8)	4 (0.5)	11 (1.2)	1 (0.1)	37 (4.1)	1 (0.1)	885 (100)
5	-	5 (11.9)	13 (30.9)	-	1 (2.3)	-	-	4 (9.5)	-	42 (100)
6	-	74 (12.50)	153 (25.84)	23 (3.9)	-	-	4 (0.6)	21 (3.5)	-	592 (100)
7	3 (0.9)	50 (15.82)	90 (28.48)	5 (1.6)	3 (0.9)	5 (1.6)	4 (1.2)	10 (3.1)	-	316 (100)
8	1 (0.6)	16 (11.1)	41 (28.67)	6 (4.2)	1 (0.6)	3 (2.1)	1 (0.6)	2 (1.4)	-	143 (100)
9	-	87 (11.12)	130 (16.62)	16 (2.0)	7 (0.9)	5 (0.6)	3 (0.4)	20 (2.6)	-	782 (100)
10	-	9 (22.5)	10 (25)	1 (2.5)	-	-	2 (5.0)	3 (7.5)	-	40 (100)
11	35 (30.70)	10 (8.8)	29 (25.4)	3 (2.6)	1 (0.9)	1 (0.9)	-	2 (1.7)	-	114 (100)
12	3 (0.1)	1,007 (51.83)	726 (37.36)	18 (0.9)	7 (0.4)	6 (0.3)	(0.6)12	43 (2.21)	-	1,943 (100)
13	6 (0.2)	706 (23.04)	1,821 (59.45)	103 (3.36)	16 (0.5)	27 (0.9)	18 (0.6)	107 (3.49)	-	3,063 (100)
14	1 (0.0)	73 (5.40)	154 (11.40)	918 (68.00)	5 (0.3)	22 (1.6)	11 (0.8)	92 (6.81)	-	1,350 (100)
15	-	13 (10.2)	24 (18.9)	3 (2.3)	67 (52.76)	3 (2.3)	-	5 (3.9)	-	127 (100)
16	-	16 (8.3)	44 (22.8)	12 (6.2)	4 (2.0)	87 (45.08)	2 (1.0)	5 (2.6)	-	193 (100)
17	-	17 (11.4)	26 (17.4)	11 (7.4)	-	2 (1.3)	70 (46.98)	3 (2.0)	-	149 (100)
18	-	83 (16.17)	122 (23.78)	54 (10.53)	5 (0.9)	7 (1.4)	5 (0.9)	156 (30.41)	-	513 (100)
19	-	-	-	-	-	-	-	-	-	2

자료: 워크넷, 고용보험 내부자료

주 1) 1: 농업 및 임업, 2: 어업, 3: 광업, 4: 제조업, 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숙박 및 음식점업, 9: 운수업, 10: 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 및 임대업, 13: 사업서비스업,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 교육 서비스업, 1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9: 가사 서비스업

주2) 열은 이전 업종, 행은 취업 업종을 나타냄.

3) 재취업 전후의 임금변화

구직등록 전에 백만원이하의 수입을 얻었던 9,476명 가운데 8,533명(90.05%)이 여전히 백만원이하의 일자리에 재취업을 하였다. 1~2백만원을 얻었던 구직자 중 25.27%(330명)만이 동구간 급여의 일자리에 재취업을 하였으며 73.81%(964명)은 백만원이하의 저임일 자리를 얻었다. 2~3백만원을 얻었던 구직자 중 임금을 유지한 비율은 10.56%에 불과하고 67.86%(302명)과 20.89%(93명)는 각각 백만원이하 1~2백만원의 일자리를 얻었다. 前職에서 저임이었던 구직자를 제외하고는 고령재취업자의 월수입이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2005년 워크넷 재취업자의 재취업 전후의 월임금 변화

(단위: 백만원, 명)

	1 이하	1~2	2~3	3~4	4~5	5~6	6~7	7~8	8~9	60	합계
1이하	8,533 (90.05)	801 (8.45)	101 (1.06)	17 (0.18)	20 (0.20)	-	2 (0.0)	1 (0.0)	1 (0.0)	-	9,476 (100)
1~2	964 (73.81)	330 (25.27)	11 (0.84)	-	-	-	-	-	-	1 (0.0)	1,306 (100)
2~3	302 (67.86)	93 (20.89)	47 (10.56)	3 (0.67)	-	-	-	-	-	-	445 (100)
3~4	97 (62.98)	26 (16.88)	17 (11.04)	10 (6.49)	3 (1.94)	1 (0.65)	-	-	-	-	154 (100)
4~5	48 (62.33)	13 (16.89)	4 (5.19)	3 (3.89)	9 (11.69)	-	-	-	-	-	77 (100)
5~6	18 (45.0)	9 (22.5)	9 (22.5)	1 (2.5)	3 (7.5)	-	-	-	-	-	40 (100)
6~7	9 (42.8)	2 (9.5)	4 (19.0)	3 (14.2)	3 (14.2)	-	-	-	-	-	21 (100)
7~8	10 (62.5)	2 (12.5)	1 (6.3)	1 (6.3)	1 (6.3)	-	1 (6.3)	-	-	-	16 (100)
8~9	6 (75.0)	1 (12.5)	-	1 (12.5)	-	-	-	-	-	-	8 (100)
9~10	7 (77.7)	-	-	-	2 (22.3)	-	-	-	-	-	9 (100)
11이하	2 (50.0)	-	-	-	2 (50.0)	-	-	-	-	-	4 (100)
13이하	1 (100)	-	-	-	-	-	-	-	-	-	1 (100)
17이하	1 (100)	-	-	-	-	-	-	-	-	-	1 (100)
합계	9,998	1,277	194	39	43	1	3	1	1	1	11,558

자료: 워크넷, 고용보험 내부자료

주) 열은 실업전 최종월수입, 행은 재취업 월임금액을 나타냄.

참고문헌

- 워크넷 원자료
- 고용보험 원자료